



▶ 두바이에 잠깐 머문다면... '안성맞춤 프로그램' 3선



두바이관광청이 아랍에미리트 두바이를 거치는 항공편을 이용할 때 경유 시간에 맞춰 즐길 수 있는 여행 프로그램을 추천했다.

월드 두바이·다운타운 두바이 8시간 정도의 여유가 있을 때 두바이의 과거와 현재를 볼 수 있는 코스다. 공항에서

30분 거리의 다운타운 두바이에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인 부르즈 할리파가 있다. 바로 옆에는 축구장 200개 크기의 세계 최대 소핑몰인 '두바이 몰'이 있다. 월드 두바이에는 전통시장, 향신료 시장, 아랍 전통 가옥이 있는 알 파하디 역사지구가 있다. 이곳의 커피 박물관, 아라비안 티 하우스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다.

사막 사파리 투어 12~16시간 경유한다면 사막 사파리 투어를 즐길 만하다. 사륜구동차를 타고 사막의 모래언덕을 질주하는 경험을 선사한다. 샌드보딩을 즐기고, 팔콘(매) 쇼도 관람할 수 있다. 사막 사파리 후에는 다운타운 두바이 인근 해변 '라 메르'를 찾아 쇼핑, 음식, 레저를 즐길 수 있다. 해변에는 물놀이 시설인 '라구나 워터파크'가 있다.

나이트 라이프(Night Life) 두바이에서 하룻밤을 보낸다면 밤 문화를 체험하는 것이 좋다. 두바이 중심가인 알 함를 시티에서는 엔터테인먼트 쇼 '라 펄'(La Perle)이 열린다. '태양의 서커스' 연출자 프랑코 드라고네가 기획한 공연으로 수중공연, 공중극에 등 450여 가지 퍼포먼스가 펼쳐진다.

▶ 몰디브 영상 콘텐츠 공모...우승자 12월 발표



몰디브관광청(MMPRC)은 레드불(Red Bull)과 공동으로 제2회 몰디브 어드벤처 페이스북 영상 콘텐츠 대회를 11월 26일까지 개최한다. 스쿠버다이빙, 섬 여행, 축제, 서핑, 스노클링 등 몰디브에서 체험할 수 있는 액티비티나 몰디브의 전통을 주제로 하는 영상을 촬영해 11월 26일 오후 2시까지 몰디브관광청 홈페이지(www.visitmaldives.com/adventures)에 제출하면 참가할 수 있다. 수상자 1명에게는 약 860만원의 상금을 준다. 선정된 영상물 10편은 몰디브관광청 공식 유튜브 채널에 게재되며 몰디브관광청의 기타 온라인 채널, 여행박람회를 통해 상영될 예정이다. 투표는 11월 28일~12월 4일 진행되고, 최종 우승자는 12월 둘째 주 발표된다.

▶ '1만여 명 참가' 시애틀 마라톤 대회



매년 1만여 명이 참가하는 시애틀 마라톤 대회가 올해는 11월 25일(현지시간) 열린다. 시애틀관광청에 따르면 올해 대회는 풀 코스와 하프 코스로 나뉘어 진행된다. 대회 참가자들은 시애틀센터의 음악박물관(MoPOP)을 출발해 다운타운을 거쳐 퓨젯만을 따라가는 코스를 달린다. 출발 시간은 풀 코스 오전 7시, 하프 코스 오전 8시다. 참가자는 시애틀 마라톤 대회 공식 코치인 라이언 힐의 특별 지도를 받을 수 있다. 라이언

힐은 국제육상경기연맹(IAAF) 월드 인도어 챔피언십 은메달 수상자로 10년 이상의 러닝 트레이닝 경력을 갖고 있다. 본 대회 전에는 유치원 어린이부터 중학생까지 참가할 수 있는 키즈 마라톤 대회도 열린다. 참가 등록 절차 등 자세한 정보는 대회 공식 웹사이트(www.seattlemarathon.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필리핀관광부, 에어텔 패키지 증정 이벤트

필리핀관광부 한국사무소와 필리핀 농림부는 이마트와 함께 필리핀 에어텔 패키지를 증정하는 이벤트를 11월 7일까지 진행한다.

이벤트 기간에 전국 이마트, SSG MALL 온라인 홈페이지의 필리핀 식자재 판매대에는 필리핀 인기 휴양지인 세부, 보홀, 마닐라, 보라카이 포스터가 부착된다.

가고 싶은 관광지 포스터를 찾아 함께 사진을 찍은 뒤 #이마트필리핀관광부, #필리핀여행, #이마트, #가고 싶은 필리핀 관광지 지역명(마닐라, 세부, 보홀, 보라카이)을 태그해 인스타그램에 올리면 이벤트에 참가할 수 있다.



당첨자 25명은 11월 12일 필리핀관광부 공식 홈페이지와 이마트 앱을 통해 발표된다.

▶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 운행하는 케이블카



스위스 남부 체르마트의 마터호른 글래시어 파라다이스(Matterhorn Glacier Paradise)로 가는 케이블카가 지난 9월 29일 운행을 시작했다. 트로크너 슈테그(해발 2,923m)와 클라인 마터호른(3,821m)을 잇는 이 케이블카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을 운행하는 케이블카로 총 25대(28석)의 곤돌라를 사용한다. 이 가운데 '크리스탈 라이드'로 불리는 곤돌라 4대는 지상으로부터 170m 상공을 지날 때 바닥이 투명해지면서 특별한 풍광과 스릴을 선사한다. 곤돌라 자체는 28만 개의 스와로브스키 크리스탈로 장식돼 화려함을 자랑한다. 밤에는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이 화려함을 더한다. 탑승시간은 9분기량이다. www.matterhornparadise.ch

▶ 봄 맞은 뉴질랜드에서 즐기는 와인 투어

뉴질랜드에서의 봄(9~11월)은 제철 포도로 갓 생산한 와인을 즐길 수 있는 시기다. 와인과 요리를 맛볼 수 있는 미식 축제도 곳곳에서 펼쳐진다. 세계적인 와인 여행 루트로 꼽히는 '클래식 뉴질랜드 와인 트레일'을 따라 여행하면 다양한 와인을 맛보고 미식 축제도 즐길 수 있다. 뉴질랜드관광청이 와인 여행자를 소개한다.

호크스 베이 뉴질랜드에서 두 번째로 큰 와인 단지로 수준급 와인과 품이 있는 식사를 즐길 수 있다. 대표 와인으로는 깊고 풍부한 맛의 샤르도네와 적포도주가 있다. 70개가 넘는 와이너리 중 42곳에서 와인 시음을 할 수 있다. 11월 2~11일에는 음식과 와인을 즐길 수 있는 '호크스 베이 푸드 앤드 와인 클래식'도 열린다.

와이라라파 북섬 남단에 있는 고급 와인 산지다. 세계적인 명성을 자랑하는 피노 누아 와인과 피노 그리 와인으로 유명한 마틴버러가 이곳에 있다. 11월 18일에는 와인인 음식을 라이브 공연과 함께 즐길 수 있는 '토스트 마틴버러' 축제가 진행된다.

말버러 남섬 최북단에 있는 말버러는 뉴질랜드 최대의 와인 산지다. 뉴질랜드 와인의 75%가 말버러에서 생산되며, 100곳이 넘는 와이너리가 있다. 이곳은 왕연어, 굴, 전복 등 싱싱한 해산물도 유명하다.





▲ 생츠퍼리 푸켓, 새 웰빙 프로그램 출시

태국 푸켓 창탈레이 해변에 있는 반얀트리 스파 생츠퍼리 푸켓이 '생츠퍼리 웰빙'(Sanctuary Wellbeing) 프로그램을 새롭게 선보인다. '생츠퍼리 웰빙'은 휴식과 운동, 테라피와 명상 등을 접목한 프로그램이다. 스파 트리트먼트, 문화 체험 등을 포함해 매주 50가지의 다채로운 액티비티로 구성한다. 웰니스 액티비티는 ▲ 신체 인지(Body Awareness) ▲ 마음 수련 명상(Mindful Practices) ▲ 최적의 피트니스(Optimal Fitness) ▲ 라이프스타일 강화(Lifestyle Enrichment) 등 네 개 카테고리로 운영된다. '선행 나누기'(Pay it Forward) 활동, 쿠킹 클래스, 자전거 라이딩도 체험할 수 있다. www.banyantree.com/en/thailand/spa-sanctuary-phuket

▼ 여의도 메리어트, 소모임 겨냥 프로모션



서울 여의도 메리어트 이그제큐티브 아파트먼트(이하 여의도 메리어트) 호텔 2층에 있는 파크카페에서 소규모 모임에 적합한 '기쁨 두 배 프로모션'을 12월 31일까지 진행한다. 이 프로모션은 한식, 중식, 일식 등을 즐길 수 있는 주말·공휴일 브런치 뷔페, 양식 또는 한식, 양식 세트 메뉴 중 선택할 수 있는 주말 디너 코스, 6코스 주말 디너 서프라이즈 메뉴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할인율은 6인 10%, 14인 15%, 15인 이상 20%. 다만 첫돌 모임은 프로모션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말·공휴일 브런치 뷔페는 오전 11시 30분~오후 2시 30분, 주말 디너 코스 또는 주말 디너 서프라이즈는 오후 6시~오후 9시 30분 이용할 수 있다. 가격은 1인당 6만5천원~9만9천원(봉사료·세금 포함). ☎ 02-2090-8050

▼ 서울드래곤시티, 가을철 '셰프 테이스팅 메뉴'

서울드래곤시티 스키이킹덤 33층에 있는 카페 '더 리본'에서 셰프들이 제철 재료를 사용해 조리한 '셰프 테이스팅 메뉴'를 12월 초까지 선보인다. 메인 메뉴는 총 2가지다. 이베리코 돼지 녹간 살과 치미 추리 구이 또는 셀을 곁들인 한우등심구이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프로슈토·레몬 젤리·아오리사과를 곁들인 차가운 콘 수프, 무화과를 곁들인 클래식 푸아그라 테린, 부드럽게 조리한 낙지와 가지퓨레, 성계 알·새우·갑오징어를 곁들인 해산물 리소토, 애플 라임 민트 소르베도 준비된다. 달콤한 밤으로 만든 디저트는 커피 또는 차와 함께 맛볼 수 있다. 셰프 테이스팅 메뉴는 저녁에만 즐길 수 있다. 2인 이상 주문할 수 있으며, 가격은 1인당 10만원. 메인 요리로 한우를 선택하면 3만원이 추가된다. ☎ 02-2223-7950



▲ 캔싱턴 제주 호텔 '윈터 스위밍 패키지'

캔싱턴 제주 호텔이 사계절 온수 풀에서 휴식할 수 있는 '윈터 스위밍 패키지'를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선보인다. 패키지는 풀사이드 뷰 객실 이용, 선착순 300객실 거품 입욕제 '사부 배쓰밤' 제공, 2박 투숙 시 루프톱 풀 파티를 즐길 수 있는 '스파티' 제공, 실내사우나 무료 이용 등으로 구성된다. '라울레' 뷔페, '돌미롱' 한정식, 이탈리아 식당 '하늘오름', 풀사이드 카페 '케니 라운지' 중에서 선택해 아침 또는 점심을 즐길 수 있다. 특히 풀 파티에서는 스낵, 칵테일, 맥주, 와인이 무제한으로 제공된다. 가격은 26만원부터(세금 별도). ☎ 1855-0202, www.kensingtonjeju.com

▼ 마우나오션리조트 '와인 호캉스' 패키지

경북 경주에 있는 마우나오션리조트가 객실에서 와인 파티를 즐길 수 있는 '와인 호캉스' 패키지를 12월 31일까지 선보인다. 이 패키지는 경주 동대산 해발 500m에 있는 리조트의 객실에서 아름다운 단풍을 감상하고 와인을 음미하며 가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상품이다. 리조트 내에 피톤치드 산책로가 마련돼 있어 휴식을 즐기기에 좋다. 패키지는 콘도형 또는 독채형 빌라 객실 1박, 아침 2인, 레드와인 1병으로 구성된다. 선시티 레스토랑 10% 할인, 스파 20%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가격은 세금과 봉사료를 포함해 11만3천원부터.



▶ 멕시코 팔레소리조트 추천 로컬 투어

멕시코 팔레소리조트가 리조트 주변의 역사와 문화를 만끽할 수 있는 로컬 투어를 소개했다. 이 투어는 숙박 일에 따라 제공하는 크레딧으로 이용할 수 있다. 크레딧은 3~4박 500달러, 5~11박 1천500달러, 12박 이상 2천500달러 상당 제공된다. www.palaceresorts.com/en

바이올리드 코로니얼, 세노테, 치첸이트사 투어 고대 마야인의 거주지로 알록달록한 고건물이 있는 바이올리드, 석회암반이 함몰되며 지하수가 드러난 천연 샘인 세노테, 마야 유적지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치첸이트사를 방문한다.

이슬라 무헤레스 투어 이슬라 무헤레스는 칸쿤에서 북동쪽으로 11km 떨어진 섬이다. 수심이 얇고 파도가 잔잔해 자녀들과 물놀이를 하기에 좋다. 스노클링, 점심 뷔페, 다운타운 쇼핑을 즐길 수 있다.

정글 투어 & 아쿠아 트위스터 보트를 타고 맹그로브 정글 속을 탐험하고 바다에서는 제트보트로 스피드를 만끽할 수 있다. 제트스키와 스노클링이 관광객들을 끌어들이는 매력 포인트다.

툰룸 익스프레스 칸쿤에서 남쪽으로 약 2시간 거리에 있는 중남미 지역 최고의 해변인 툰룸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다. 해변 앞에 있는 바위 절벽에 오르면 성벽으로 둘러싸인 마야 유적지를 감상할 수 있다.





▲ 로열브루나이, 항공권 특가 판매

로열브루나이항공이 인천-브루나이 왕복항공권을 총액 30만5천원부터 판매하는 특가 프로모션을 11월 11일까지 진행한다. 항공권 유효기간은 여행 완료일 기준 11월 30일까지. 로열브루나이항공은 인천-브루나이 구간 항공편을 매주 화, 목, 일요일에 한 편씩 운항하고 있다. 인천에서 오후 10시 30분 출발해 브루나이에 다음 날 새벽 3시 5분 도착하고, 복항편은 오후 3시 15분 출발해 오후 9시 35분 돌아온다. 비행시간은 5시간 20분. 로열브루나이항공 관계자는 "금요일에 휴가를 내면 목요일에 출발해 일요일 도착하는 스케줄로 여유로운 여행을 즐길 수 있다"고 말했다. ☎ 02-777-7556

▼ 피치, 일본 편도 항공권 커플 할인 판매

일본 저비용항공사(LCC) 피치항공이 한국-일본 편도 항공권을 총액 4만9천400원부터 판매하는 '뭉쳐야 싸다' 프로모션을 11월 15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프로모션은 2명 예약 시 1인당 운임이 부산-오사카(간사이공항) 4만9천400원, 인천-오사카(간사이공항) 6만4천400원, 인천-도쿄(하네다)/오카나와 노선은 6만6천400원부터다. 프로모션 항공권 유효기간은 10월 10일부터 내년 1월 18일까지(12월 21일~1월 6일 제외).



피치항공은 11월 11일까지 4만 피치포인트, 피치항공 오리지널 토트백 등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는 페이스북 이벤트도 진행한다. 피치항공 공식 페이스북에서 함께 여행 가고 싶은 친구를 태그하고 오사카 또는 오카나와의 희망 방문지를 적으면 된다. 피치항공은 현재 인천-오사카 매일 4회, 부산-오사카와 인천-도쿄/오카나와를 매일 1회 운항하고 있다. www.flypeach.com

▼ 에어서울, 일본 삿포로 취항



에어서울이 11월 26일부터 주 7회 일정으로 인천-삿포로(치토세) 구간에 신규 취항한다. 인천-삿포로 항공편은 인천에서 12시 25분 출발해 삿포로에 오후 3시 50분 도착한다. 복항편은 오후 4시 25분 출발해 오후 7시 35분 돌아온다. 에어서울은 이번 삿포로 신규 취항으로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 오카나와 등 총 13개의 일본 내 도시를 연결하며 국적 항공사 중 가장 많은 일본 노선을 운항하게 됐다. 에어서울은 11월 26일 인천-보라카이(칼리보) 노선에서도 주 7회 일정으로 운항을 시작한다. 인천-보라카이 항공편은 인천에서 오후 9시 40분 출발해 보라카이에 다음 날 새벽 1시 25분 도착한다. 복항편은 새벽 2시 25분 출발해 아침 7시 50분에 돌아온다.



▲ 아시아나, 자체 개발 수제 맥주 서비스

아시아나항공이 국내 최초로 인천공항 1터미널 아시아나항공 퍼스트-비즈니스 라운지에서 자체 제작한 프리미엄 수제맥주 'ASINA'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ASINA'는 아시아나항공과 수제 맥주 제조업체인 '코리아크래프트브류어리'가 함께 개발했다. 일러스트 작가인 '키미앤일'이 라벨 일러스트에 참여해 '맥주와 함께 힐링하는 여행의 설렘'을 표현했다. 알코올 도수는 4.7%이며, 풍부한 과일 향과 깊은 풍미가 특징이다. 올해 12월까지 병맥주와 생맥주로 즐길 수 있다. 같은 기간 코리아크래프트브류어리의 총복 음성 양조장에서 별도 구매할 수도 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 회원과 탑승객은 내년 9월 30일까지 코리아크래프트브류어리의 총복 음성 양조장에서 진행되는 '아시아나 클래식 투어' 프로그램의 티켓 할인을 받을 수 있다.

▼ 하와이안항공 '마우리 프로모션'

하와이안항공이 겨울 성수기 인천-호놀룰루 노선 매일 운항을 기념해 인천-호놀룰루 구간 요금으로 마우이까지 여행할 수 있는 항공권을 11월 9일까지 판매한다. 내년 1월 10일~2월 15일 인천에서 출발하는 항공권에 적용된다. 세금과 유류할증료가 포함된 왕복항공권 요금은 일반석이 76만4천500원, 비즈니스석은 223만4천500원부터다. 프로모션 관련 자세한 내용은 하와이안항공 홈페이지(www.hawaiianairlines.co.kr/deals-and-offers/incheon-to-hawaii-winter-sale)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와이안항공은 현재 주 5회(월, 목, 금, 토, 일) 운항하는 인천-호놀룰루 노선을 내년 1월 14일부터 2월 6일까지 주 7회로 증편한다.



▼ 베트남항공, 인기 관광지 호텔 특전 제공

베트남항공이 베트남 인기 관광지의 호텔과 제휴해 한국-베트남 노선 이용객에게 다양한 특전을 제공하는 행사를 연다. 해당 호텔은 다낭의 벨 메종 파로산드 다낭 호텔, 벨 메종 하다나 호이안 스파 & 리조트, 골든 베이 호텔, 나만 리트리트 리조트, 코코베이 다낭 호텔, 냐짱의 식스 센스 닌 반 베이 리조트, 꾀다오섬의 식스 센스 꾀다오 리조트다. 이들 호텔은 숙박료 할인, 객실 무료 업그레이드, 얼리 체크인-레이트 체크아웃, 레스토랑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내년 3월 31일까지 호텔 링크에서 프로모션 PR 코드를 입력한 후 예약할 수 있으며 호텔별로 이용 기간, 할인, 특전 내용이 다르다. 체크인 시 예약자 명의의 항공권이나 항공권 사본을 제시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베트남항공 페이스북(www.facebook.com/VietnamAirlinesKorea), 인스타그램(www.instagram.com/VietnamAirlinesKorea)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베트남항공은 내년 4~7월 항공권에 대한 '얼리버드 프로모션'을 진행 중이다. 왕복항공권 가격은 하노이 30만6천500원, 호찌민 32만8천100원, 다낭 30만900원부터다. 내년 3월 31일까지 예약할 수 있고, 탑승 기간은 내년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편 베트남항공은 내년 4~7월 항공권에 대한 '얼리버드 프로모션'을 진행 중이다. 왕복항공권 가격은 하노이 30만6천500원, 호찌민 32만8천100원, 다낭 30만900원부터다. 내년 3월 31일까지 예약할 수 있고, 탑승 기간은 내년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